

촛불혁명과 대한민국의 미래

박상봉 박사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대립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촛불과 태극기 대립, 태블릿 PC 조작, 사드 갈등, 탈원전 대립, 적폐청산, 민노총 언론노조 KBS/MBC 지부의 제작거부, 코리아 패싱, 한미 FTA 등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다. 국민투표로 당선되었으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가는 곳마다 ‘촛불 대통령’을 내세운다. 7월 독일 베를린 코르버 재단, 9월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나는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대통령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대통령의 연설이라면 박수감이다. 장미혁명, 툴립혁명, 핸드폰 혁명이 그랬다. 그런데 뜬금없이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고 10위권 경제강국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육박한 나라의 대통령이 촛불로 집권했다고 하니 우스꽝스럽다. 트럼프, 마크롱, 메르켈, 아베 등과 같은 지도자가 “촛불혁명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다”고 유

엔에서 연설한다면 어떨까? 웃긴다. 80년대 운동권 의식이다.

전쟁으로 점철된 유럽의 역사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각오하라”는 지혜를 미래 지도자들에게 남겼다. 이런 지도자들 앞에서 문재인은 32번이나 평화를 강조했다. 나치에 버금가는 3대 세습독재자 김정은을 향해 평화와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그에게는 태극기, 보수 우파도 궤멸의 대상인데 전 세계가 규탄하는 김정은에게는 대화 일변도다. 이러니 유엔 총회장이 텅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보수 죽이기는 전쟁 위기의 와중에도 그칠 줄 모른다. 전임 대통령을 탄핵한데 이어 구속해 무리한 재판을 이어가는 한편, 4대강 사업, 국정원 댓글을 빌미로 이명박 대통령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이러니 ‘샤이 보수’들마저 빨났다. 김대중, 노무현은 ‘원조적폐’, 문재인은 ‘신적폐’라며 권양숙이 받은 640만 불 뇌물사건도 조사하자고 맞불을 놓고 있다.

따지고 보면 작금의 핵 위기가 김대중이나 노무

현 대통령의 무지와 편견과 무관하지 않다. DJ는 2001년 정상회담 후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북한에 면죄부를 주었다. 노무현의 북한 사랑은 눈물겹다. “북한 핵 주장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북한 핵실험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 “인도는 핵 보유가 용인되고 북한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불안하다고 느끼겠느냐” 등 북한 대변인 노릇을 자임했다.

이렇듯 2017년 10월 대한민국 안보 위기가 전임 두 대통령들의 무지한 대북관, 비뚤어진 역사관 및 반미감정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를 반복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구호가 민망하다. “나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발언은 그야말로 위선의 극치다.

한미동맹의 위기

3월 10일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던 날이다.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했다. 이 날 독일의 주요 일간지 디벨트(Die Welt)가 탄핵 후 ‘대한민국 대선’이라는 제목으로 한반도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진보좌파 정권이 탄생할 유력하며”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국과 공조해 반트럼프 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사드 배치도 철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김정은을 ‘마르 아 라고’ 개인 별장으로 초대해 골프 회동을

가질 수도 있다. 결국 김정은의 핵 벼랑끝외교의 승리”라는 보도였다.

디벨트의 예언과도 같이 5월 10일 문재인 정권 출범 후 64년 한미동맹이 살얼음판이다. 10차례의 미사일 도발, 2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6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강화되는 와중인데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기이하다. 북한에 인구조사 지원금 600만 달러와 인도주의적 지원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핵 인질범의 식솔을 인질이 먹여 살리자는 가짜 평화요 페이크 인도주의다. 스톡홀름 증후군의 전형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도 억지투성이다. 보고를 누락해서, 중국에게 물어보고, 환경평가를 해보고, 성주 주민들이 반대해서 등등 억지를 부리다 마지못해 임시배치라며 1세트 6기의 배치를 완료했다.

한미동맹이 위태롭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트럼프 공개처형 퍼포먼스가 벌어지고 사드를 철회하라며 미국 대사관을 촛불로 에워싼다. 미북이 싸우면 북한 편을 들고, 미중이 대립하면 중국 편에 선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는 시간낭비라고 하는데 대화를 고집한다. 한미일 정상 앞에서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거론하며 귀국해서는 딴청이다.

드디어 문재인 정권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있을 수 없다.”고 레드라인을 넘었다. 미국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반미주의자가 아니면 절대 내뱉을 수 없는 막말이다. 도발은 북한이 했는데, 미국을 전쟁광으로 몰아가는 주사파적 시각이다. 한미동맹이 깨지면 중국에 붙어살면 된다고 배수의 진도 쳐놓았다.

“이해하고 이해받는 곳 - 그 곳이 고향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절제되어야 한다. 국민을 통합하

고 안보에는 단호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말들은 거의 막말 수준이다. 대통령의 말에 국민이 분열하고 특보의 말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3일 통일 27주년을 맞았다. 통일 후 유럽의 리드 국가로 자립 매김 했지만 여전한 동서 격차, 난민유입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독일 역사상 최초로 반외국인 정당, 네오나치로 비판 받는 독일대안당(AfD)가 연방하원에 진출했을 뿐 아니라 제3당의 지위를 얻었다.

이런 가운데 행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통일의 날 연설이 마음을 울린다. 언론이 대통령이 이 연설을 한 문장으로 뽑았다. “(남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받는 곳 - 그곳이 고향입니다.” 이 평범한 연설에 경륜과 지혜, 성숙한 민주주의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태극기 세력의 고향은 어디냐고?”

‘북한은 악의 정권’

서울의 000 교회가 9월 둘째 주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금식기도를 정하고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의 악의 정권은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라며 선포했다. 양비론이 판을 치는 좌편향 운동장에서 한줄기 희망이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한다. 악을 악이라 말할 수 없는 도덕적 위기다. 북한을 두둔하면 평화주의자, 북한을 공격하면 색깔론자라는 딱지가 붙는 것도 일상이다.

이런 기울어진 일상에 교회와 기독인이 나선 것이다. 나라의 위기 때마다 참된 기독인들이 나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했듯이 이번에도 그렇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도덕적 위기 때마다 나서서 나라를 구해낸 기독인들을 발견하게 된다. 미국의

링컨, 영국의 윌버포스, 독일의 가우크는 전형적인 기독인으로 위기 때 빛을 발한 정치인들이다.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 특보다. 그가 얼마 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로마서를 인용해 세상 통치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악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며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을 제거할 권한을 부여하셨다”고 선포했다. 우상의 나라, 악의 정권을 악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목회자나 주적을 주적으로 부르지 못하는 정치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기적의 역사다. 일반에게는 기적이지만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다. 건국의 역사가 기적이며 제헌의회의 구성이 하나님의 개입이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통일, 복음통일을 통해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을 회복하고 평양발 선교가 유대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글 |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로 연세대와 베를린 자유대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前 명지대 교수와 통일교육원 원장을 역임하였다.